주·야간보호센터 061)394-0123
신세계요양원
061-395-2580 장성읍 방울샘길 12 (장성읍 영천리 1493-5)

호남신문

호남신문 자매지 국민복지신문 2010년 8월 30일 창간

(대표전화) 062-229-6000 1946년 10월 26일 창간 i-honam.com 제 3499호 (음력 2월 22일) 2023년 3월 13일 월요일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광양매화축제, 역대 최대 인파…하루 17만여 명 다녀가

무료셔틀 증차·광주~축제장 임시 버스 운영

"상춘객 집중되는 주말보다 평일 방문 당부"

4년 만에 열린 제22회 광양매화축제가 상춘객들로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12일 광양시에 따르면 10일 광양매화축제 개막 후 10~11일 누적 방문객은 55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축제 시작 후 첫 주말인 11일 토요일은 당일만 17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됐다.

인파가 몰리자 시는 둔치주차장과 도사 주차장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증차하고 주말보다는 평일에 방문할 것을 주문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장 조성에 나서고 있다.

또 광양매화축제를 즐길 수 있는 주말 광양시티투어의 호응에 투어버스를 1대 늘리고 평일에도 10인 이상 예약 시에는 운영키로 방침을 변경했다.

시는 광양매화축제 전 기간 광주~광양읍~광양매화마을을 오가는 40인승 왕복 임시버스를 매일 운행하는 등 편의 제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2023 전라남도 대표축제에 선정된 광양매화축제는 '광양은 봄, 다시 만나는 매화'라는 슬로건 아래 10일 오후 2시 매화문화관 앞 주 무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흘간의 대장정에 올랐다.

리버마켓, ESG '걷깅줍깅 in 매화축제' 등 트랜드를 주도하는 프로그램과 체험, 즐길 거리를 도입했다.

광양매화축제 최초 스폰서십 도입으로 3만원 이상 영수증에 500만원 상당 황금매화, 아이패드 등의 경품 기회를 주는 '황금 매화·매실 GET' 이벤트도 인기를 끌고 있다.

매돌이와 함께하는 AR 인생샷, 매화꽃길 BGM 저장소, 홍쌍리 명인의 쿠킹클래스 '홍명인의 매實밥心' 등 광양의 정체성을 살린 오감 만족 프로그램도 가득하다.

교통혼잡 최소화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 관광약자를 위한 휠체어 및 유모차 대여, 실시간 교통상황 안내 등 관광수용태세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축제장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고 KBS 전국노래자랑, 남도숙박할인 빅 이벤트 등 다양한 연계프로그램으로 축제 분위기를 시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정구영 관광과장은 "광양매화축제가 4년 만에 개최된 데다 구례 산수유 축제, 일요일 비 예보 등이 겹치면서 지난 토요일 방문객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광양시는 방문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쾌적하고 매력적인 축제장 운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0일 광양시 다압면 일원에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매화가 살랑살랑 봄 바람을 타고 꽃망울을 터뜨려 섬진강을 하얗게 수놓와 상춘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이번 축제는 10일부터 19일까지 열린다. (사진=전남도 제공)

이어 "광양매화마을의 진면목과 다채로운 체험을 여유 있게 즐기시려면 상춘객이 몰리는 주말보다는 평일에 방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광양=김현근 기자

동복댐 저수율 14년 만에 20%선 붕괴…"절수 절실"

동복댐 6월 말·주암댐 5월 말 고갈

광주지역 최대 식수원인 동복댐 저수율이 14년 만에 20% 아래로 내려갔다.

11일 광주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동복댐 저수율 19.97%를 기록했다. 동복댐 저수율이 20%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14년 만이다.

주암댐 저수율도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18.2%를 기록하고 있다.

앞서 주암댐은 지난 5일 저수율이 19.9% 기록하면서 20%대가 무너졌다.

댐 고갈 시기는 주암댐의 경우 6월 말, 주암댐은 5월 말로 예상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절수 운동과 동복댐 상류 지하수 개발을 하고 있다. 또 지난 2일부터 영산강에서 용연정수장으로 하루 3만 t의 하천수를 끌어오고 있다.

광주시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이 상태로 비가 오지 않으면 오는 5월께 제한급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절수가 절실한 만큼 시민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정승호 기자

경전선 순천 도심 우회하나…국토부 "시민 의견 충분히 반영"

국토부·전남도 순천서 경전선사업 주민간담회

순천 도심 통과로 지역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경전선 철도건설사업 노선 조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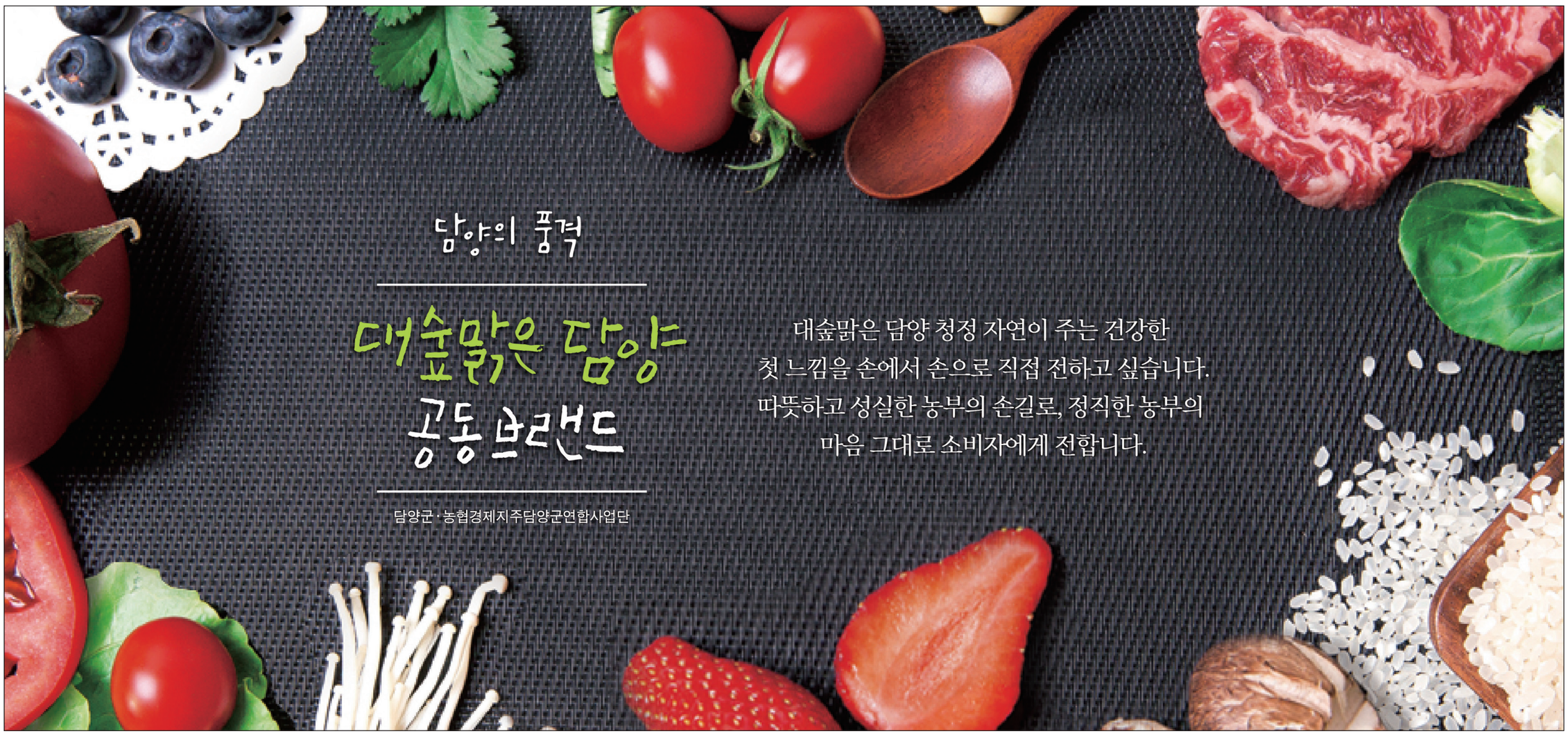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광주송정과 순천을 잇는 경전선 철도건설사업 지역민 의견수렴을 위해 순천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철도국장과 전남도 건설교통국장, 순천시장, 순천시민 등 100여명이 함께 했다.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철도건설 사업은 광주에서 나주 혁신도시와 보성을 거쳐 순천을 잇는 121.5㎞ 길이의 구불구불한 기존 철로 선형을 개량하고 전철화 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조9848억원을 투입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순천 도심 우회를 요구하는 순천시민의 의견에 대해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기본·실시설계 과정에서 전문가, 관계기관, 순천시민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순천시민들은 광주송정~순천 간 비전철구간의 신속한 추진과 순천 도심 통과 구간에 대해 남해고속도로 인근 노선 성산역을 활용하는 우회노선 등을 건의했다.

경전선은 현재 목포에서 부산까지 6시간 36분(광주 경유) 소요되고, 2024년 남해선(목포~보성)이 개통되면 당분간 환승은 불가피하지만 3시간 37분이 소요된다.

앞으로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되고 공사가 속도감 있게 추진돼 2030년 완전 개통되면 목포에서 부산까지 운행시간이 2시간 24분까지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호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순천시와 함께 경전선 철도 건설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돼 주민 편의가 향상되도록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